

월간 PIGHEAD LAB
피그헤드랩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43호
2026.7



오종원_ 선거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다

서른아홉번째 원고

김혜현_ 도저히 감당이 안될 때 우리는 도피처를 찾는다

일곱번째 원고

조은영_ L♡보ME 칼럼 4. 시간의 풍경, 한강의 소리

네번째 원고

X_ 그곳에 가고 싶다 : 유토피아(Youtopia)

열여덟번째 원고

김희진_ 작은 방을 만든다

서른번째 원고

한량윤씨_ 미장하는 사람

열번째 원고

선거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다



오 중 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선거 운동원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팀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처음에는 “나는 무조건 당선이야!”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다.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할 때만 하여도 ‘만약 안되더라도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자’ 정도였다. 자신감이 그리 없었나? 라고 물으면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다. 내게 정치라는 영역은 새로 시작한 모험이었고 그렇다고 내가 동네에서 그럴싸한 활동을 했던 것도, 인지도라고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승리를 말할 수가 없었다.

급하게 동네에서 선거를 좀 치른 경험이 있는 어른을 찾는다. 동네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 어떤 지역의 터줏대감 같은 분으로, 빠삭하고 오랜 시간 선거를 도와온 경험이 있는 인물. 어디에 사람이 많은 지, 또 주민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당 동네에서 어느 정도 표심을 끌 수 있는 인물.

건너건너 이러한 분을 소개받게 되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선생님. 딱 우리 아버지와 동갑이셨는데 편하게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셨다. 선거 운동원으로 몇 번을 뛰었다고 하는데, 그 몇 번이라는 경력도 십 수년일 것이다. 처음 소개를 받은 저녁, 나보고 명함을 돌리자고 부르신다. 뒤에서 뒷짐을 지며, 나보고 한번 명함을 돌려보라고. “잘 부탁드립니다. 명함 받아 주십시오. 명함에 공약들을 써놨습니다.” 나름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공손히 명함을 내밀어본다. 바로 따끔하게 야단을 치신다. 후보가 이렇게 소심하게 명함을 돌려서는 되냐고. 지금 한 장이라도 더 명함을 돌려야 하는데 왜이리 머뭇거리냐고.

“사람들이 명함을 불편해하는게 느껴져서요. 또 명함을 너무 쉽게 버리는데 이 명함을 나눠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하니 화를 내시며 말한다. 지금 이 명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냐고. 당신 이름 여기서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 당신을 어떻게 알리겠느냐. 지금 이 명함이 전부다. 이 명함에 있는 몇 글자로만 당신을 알릴 수가 있다.

그 말이 맞았다. 내가 너무 몰랐던 것이다. 선거 기간 중 나 자신을 알리는 방법은 오직 피켓을 들고 고함을 치거나, 명함을 뿌리는 일 밖에 할 수가 없다. SNS 유료홍보 등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방법들은 선거법 위반이었다. 오직 몸으로만 승부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쥐어줄 수 있는 것, 나라는 인물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명함 뿐인 것이다. 그

리고 그 명함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만 가능했다. 그렇게 한소리 듣고 나니 철석 같은 믿음이 생겨, 이모님을 사무장으로 기용하였다. 선거 사무장은 딱 한 명 기용할 수 있는데, 이 사무장이 러닝 메이트라고 볼 수 있다. 곧 선거유세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모님한테 배울 수 있었다.

이모님은 항상 아침 5시가 조금 넘으면 전화를 주셨다. 얼른 역으로 나가자고. 아 피곤해 죽겠다 하여도 이모님 전화를 받으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며칠 안되어 나는 저절로 5시 쯤 이 되면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 지하철 역으로 나가면 거진 6시 내외. 이 시간이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 유세 막바지가 되어갈수록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

나의 경우에는 다인 선거구제라서 지역구 내 총 5개의 역에 후보는 9명이었다. 그러나 역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주요 역은 두 개 정도였다. 처음엔 이 9명의 후보가 단독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렇게 한 역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어도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운동원을 쓰게 된다면? 이윽고 그 역은 각 후보와 수많은 운동원들로 인하여 붐비고 “안녕하십니까! 기호 X번! OOO입니다!” 사방에서 소리를 지르니 엄청나게 소란스럽다.

다시 내가 출마한 지역은 지역대가 넓기 때문에 선거 운동원을 총 8명까지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역이 많다고 해서 두어명 씩 운동원을 배치해 봤자 효과가 나질 않는다. 4명 혹은 8명이 한 역에 모여서 일종의 팀을 형성하고 홍보를 해야 효과가 먹힌다. 나만 그렇게 하겠는가? 9명의 후보들이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한 역에 몇 명의 후보만 모여도 운동원까지 하면 벌써 몇 십 명이 모이고 소리를 지른다.

처음에는 다소 가혹하다는 생각도, 또 사람들이 찌푸리는 얼굴을 종종 보면서 이게 옳은 방법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방법이 없다. 사람들에게 나를 각인시키는 일. 그것은 오로지 계속 소리를 치고 얼굴을 들이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아침인사를 그렇게 시끄럽게 마치고 9시쯤 끝나면 사무실로 복귀이다. 목에 걸었던 무거운 피켓을 내려놓고 나면 잠깐의 쉼이 생긴다. 아니 쉼이라고 해야 할지, 또 일이 많다. 재빨리 SNS에 게시할 홍보물도 만들어야 하고 밀렸던 회계 처리도 짬짬이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침을 대충 때문이다. 인근 시장에서 만두나 빵 같은 것을 사와서 이모님과 그것으로 아침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것이다. “이모님 오늘 XX역은 사람들이 좀 덜하네요. 내일은 OO역으로 가시죠.” “내 생각에는 OO역도 많기는 하지만 XX역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야해. 그래야 사람들이 얼굴을 더 익힌다고.” 그리 길지 않는 휴식시간에도 서로 작전을 짜고 논의한다.

잠깐이라도 앉아있을 시간이 생기면 이모님은 핸드폰을 뒤진다. 그리고 전화를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꼭 기호 3번 오종원이 뽑아.” “누구 엄마 잘 지내지? 지난번에 내가 말한 후보 있잖아~ 기호 3번으로 꼭 뽑아줘.” 핸드폰에 대체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많은 동네 사람을 어떻게 다 알고지내는 것일까. 무리하지 마시고 쉬시라고 말함에도, 본인도 쉬면서 하는 거라며 매일매일 몇 통화씩 돌리는 것이다. 대화를 들으면 한번만 전화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잊을까 하면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해서 나를 각인 시키는 것이다.

얼추 그렇게 휴식 시간이 지나면 나를 재촉한다. 나가서 또 명함 돌려야지. 오늘은 어떤 동네로 가볼까. 슬슬 상가들을 돌아다닐 차례다. 이모님과 함께 거리로 나선다. 오늘은 이 골목 끝에서 저 골목 끝까지. 이따가 점심 먹고는 저 골목 끝에서 무슨 동 골목까지 가보자. 한집 한집 문을 열며 들어선다. 이것은 오로지 후보인 내가 해야 할 몫이다.

“안녕하세요. 기호 3번 오종원입니다. 저를 뽑아 주시면 꼭 동네 상권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함 한 장 놓고 가도 되겠습니까. 여유 나실 때 꼭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지하철 역 인사와 상가 인사는 확실히 다르다. 역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얼굴을 알려야 하니 빠르게 빠르게 인사를 돌린다면, 상가에 방문하는 것은 정성껏 한 분 한 분 설득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반응들은 제각각이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이에요! 라며 응원해주는 분이 계시면 크게 감동받는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네 두고 가세요,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라며 적당히 명함을 받아 주신다. 처음 한동안은 상가에 들어가는 게 두렵고 막막한 느낌이 없지 않았

는데, 짜증내거나 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었다.(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게 한국인의 정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천대받거나 불쾌하게 나오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거 유세기간인 4~5월이 그나마 날이 나쁘지 않아서 망정이지, 하루에 2만보 3만보를 찍히는 것이 대부분 상가, 거리유세를 하면서 다니는 걸음이다. 이모님은 늘 곁에서 같이 보조해 주신다. 내가 들어가서 조금 버벅거리는 것 같으면(두어 골목을 돌고 나면 말이 안 나온다.) 바로 바톤을 이어서 대신 인사를 한다. 이 동네 으뜸가는 일꾼인데 꼭 뽑아 주십시오. 이번에 뽑고 별로라면 4년 뒤에 다시 뽑지 마. 그러면 나는 옆에서 꼭 뽑아 주십시오 하면서 장단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이제 잠깐 쉬어야겠다 사무실로 복귀하면 오후 4시경이다. 술술 점심 겸 저녁식사일지 간식일지 모를 빵 같은 것을 입에 넣는다. 이모님과 사무실에서 컵라면이나 만두, 김밥 등을 같이 먹기는 했지만 한번도 밖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다. 선거법에 걸리거나 괜히 문제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어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나서 후보가 계산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린다. 더치페이를 하거나 같이 먹은 사람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굶어 부스럼을 만들 바에 사무실 안에서 매일 대충 때우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렇다.

아무튼 한시간 남짓 쉬고 나면 이제 역에 나가 퇴근인사를 해야 한다. 이것도 다른 후보들에게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일찍 나서야 한다. 유세가 한참인 선거 직전에는, 중요한 버스 정류장 하나(4천세대 아파트 단지의 입구에 있는 정류장이었다.)를 장악하기 위해서 후보와 수십 명의 운동원들이 야에 3시부터 자리싸움을 한 적도 있었다. 항상 먼저 움직여야 한다. 이모와 함께 다시 무거운 피켓을 들고 역으로 나선다.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인사. 다만 이번에는 후보나 운동원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모두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다. 초체 해진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어 시간 퇴근 인사를 하고 복귀하면 이미 깜깜한 밤이다. 나나 이모님이나 목이 나가 있다. 서로 걸걸한 목소리로 내일 아침의 작전을 간단히 짜고 나면 나는 또 밤시간 동

네인사를 하러 홀로 나서고, 이모님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11시, 12시에는 잠에 드실려나. 이러한 생활을 선거운동 기간 매일 반복한다. 공휴일이라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빠져본 적이 없다. 내려온 다크 서클, 이미 걸걸해진 목소리, 입이 바짝 마를 때 나는 입 냄새, 잔뜩 예민해졌지만 이미 너무 피곤한 관계로 짧게만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그렇게 ‘오종원’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선거가 끝나는 투표일,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간 이모님은 내 낙선이 짐작 되었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한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같이 열심히 뛰었는데 압도적으로 져버렸기 때문에 이모는 그게 참 속상하고 서러웠다고 한다. 그래서 개표가 끝나고 이 삼 일은 내게 연락이 없으셨다. 또 받지도 않으셨다. 며칠이 지나 이모님을 다시 만났고 우리는 갈비집을 갔다. 앞서 말한 대로 그동안 밖에서 식사 한 번 당당히 하지 못했던 지라, 이번에는 내가 큰맘 먹고 갈비를 대접하였다. 둘 다 아직도 아침 5시 전에 눈이 떠진다고 말하며, 선거가 참 무섭다고. 그러고서 나보고 다시는 선거 출마하지 말라고 그런다. 너무 고생했지 않냐. 그렇게 낙선이 마음 아플 수가 없더라.

이 과정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도움 받게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8명의 선거 운동원분들과 인연도 그렇다. 본 선거 유세 기간에는 선거 사무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나와 이모님 맨투맨으로 뛰던 것을 총 8명의 운동원들과 같이 유세를 펼칠 수 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새벽같이 나와서 밤까지 유세를 펼친다.

팀내 사기를 올린다고 회식도 마음대로 하기는 커녕 간식 하나 대접하기도 쉽지 않다. 깍해야 생수나 박카스 한 병 정도. 그리고 돌아가면서 들고 오시는 간식, 떡볶이나 떡 같은 것을 나눠먹으며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내자며 서로를 다독거렸다. 특히 내가 유세를 하다 지치거나 기분 나쁠 일이 있으면 다독겨주거나 위로해주고, 때로는 대신 싸워주거나 하면서 초보 후보의 기가 죽을까 열심히 보살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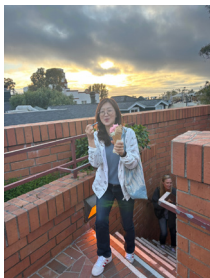
이외에 너무 많았던 구민들의 응원. 환호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던 분들, 물론 냉정하게 생각하면 오종원이라는 존재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후보라는 것이 그 이유겠지만,

그 상징성을 어깨에 짊어지고 대신 응원을 받는 기분은 이루 표현하기 어려운 책임감을 안게 한다.

선거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집안 기둥뿌리 뽑아먹는다는 말이 있다. 처음 출마를 결심했을 때 이모한테 물어봤다. “이거 한번 하고 떨어지면 아닌가 보다 하고 말아야지, 왜 그리 도전을 하는 걸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하고 응원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거기에 빠지는거야.”라는 답을 들었다. 나는 처음에 그게 그저 사람들의 환호에 중독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집착 정도로 생각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아니깐 저런 것에 빠지지 않겠지.

아니었다. 사람들의 환호에 빠지는 것은 하나의 단편일 뿐이다. 그들이 나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이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응원에 부합해야 하는 그 마음이 나를 묶어놓는 것이다. 러닝메이트와 함께 팀을 꾸리고 많은 이들의 응원 속에서 선거일이 다가오면. “아! 나는 무조건 당선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고생과 응원에 보답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이다.





김 혜 현
4년차 갤러리스트

도저히 감당이 안될 때 우리는 도피처를 찾는다

“나는 슬픔에서 빠져나와 기쁨을 느꼈다.” - 소설가 위화 <산곡미풍> 중에서 발췌
나는 문화공간을 9년 정도 운영했다. 시각예술 전시공간, 상업 갤러리를 5년간 운영했다. 그 기간동안 기획한 전시들이 수십번이었다. 지난달 말일에 그 공간에서 마지막 전시들을 하고 공간의 문을 닫았다. 예상한 일이었지만, 공간을 이어서 인수할 사람은 없었다. 마지막 3주 동안 적어도 백 명 이상의 지인들과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이 공간을 닫는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에,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자고 몇 번이나 찾아와 주는 분들도 있었다. 시원섭섭하겠지만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 참 고마웠다고 덕담과 칭찬을 해주는 이웃들이 있어서 공간을 정리하면서도 고생스럽기보다는 감사한 마음과 기쁨이 가득했다. 상가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머물렀던 작은 공간을 정리하고 기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내려왔다.

지난 9년 동안 늘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나를 지원해 준 두 사람 중 한 명인 엄마와 함께 일주일을 보냈다. 폭 자고, 실컷 먹고, 또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옷도 사입고, 미용실도 가고, 네일도 받았다. 동생네 가족이랑 밥도 먹고, 동생네 강아지도 안아주고, 너무 예뻐진 조카 얼굴도 한 번 보고, 막내숙부랑 숙모네 시골집도 놀러가고, 아빠가 그렇게 쟁기던 선산에도 함께 다녀왔다. 할머니 제사에 가서 할머니께 인사도 하고 비석도 깨끗하게 닦아놓고 왔다. 거의 한 달 동안 밥은 사먹고, 요리를 안 했더니 너무 행복했다. 식당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요리법 따위가 궁금하지 않았다. 한국은 정말 천국같이 느껴졌다.

다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주말을 보내고, 출근을 했다. 얼떨결에 새롭게 직장을 얻었던 터라, 정신없이 적응하다가 한국의 전시공간을 정리해야 해서 한 달 이상의 휴가를 받아 다녀왔더니 얼떨떨했다. 이제 열흘 정도 지나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어제는 마지막 부가세 신고도 했다. 몇 년 뒤에 다시 갤러리를 오픈할 계획은 있지만, 일단은 폐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위화의 에세이를 읽다가 이런 문장을 만났다. “나는 슬픔에서 빠져나와 기쁨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공간 운영에 대한 길고 긴 이야기를 쓰다가 다시 접었다. 글을 쓰면서 계속 고 통스럽다고 느꼈다. 그 시간은 분명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면의 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기쁨만으로 가득했다면, 글을 쓰는 게 그리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전시 공간 운영자로 살 때는 철저히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만 써야 했었다. 힘들어도 안 힘든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외롭지 않은 척. 밥도 잘 사고, 커피도 잘 사고,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늘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응원하고. 내가 매일 쓰는 일기 같은 글들은 그렇게 내면이 무너져 가는 나를 응원하는 말이어야 했다. 힘든 날일수록 더 크게 소리 내어 웃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쓰다 멈추고, 다시 기쁨을 느끼게 될 때까지 며칠 더 일상을 보냈다.

더 길게 쓰고 싶지만, 이제는 억지로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 위화의 문장을 통해 구원을 받고 싶다. 슬픔에서 머무르지 않고 빠져나와 기쁨을 선택하고 싶어졌다. 예술이 주는 압박감이 아닌 진정한 해방을 느껴보고 싶다. 앞으로 5년 동안은 그렇게 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는 이 먼 곳까지 이사를 온 것이고,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남들이 보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뿐이다. 이 기회도 본인들의 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많은 유학생들이 다 유학생할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나도 많이 봐왔기

43. 2026.7

때문이다. 나의 아이들은 한국에서 어린이집부터 초등, 중고등학교까지 대안교육 안에서만 있었다. 한 번도 대학을 위한 입시공부를 해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은 나 자신이다. 그리고 지난 18년을 믿고 지지해준 또 다른 한 사람 ‘남편’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나는 나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제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한다.



9년간 운영해온 공간을 정리한 마지막 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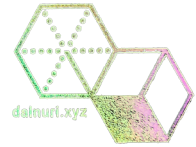
올해는 1년 동안 할 전시를 상반기 6개월 동안 해야했다. 생각보다 많이 지친 것 같다. 하반기에는 천천히 책이나 글을 많이 읽어보려고 한다. 읽을 만한 것들을 많이 받았다. 소설가님이 전달해주신 장편소설 원고도 있고, 재미난 단편소설을 쓰신 평론가 선생님의 글도 쟁여두었다. 쉬게 되면 읽으려고 사놓은 책도 책장에서 눈이 빠지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 공예품에 관련된 책을 한 권 편집해서 영문판으로 내볼 생각으로 한국에서 모아온 자료도 있다. 뭔가 야심차게 마음먹었지만 시작이 그리 방대할 이유는 없으니 최대한 가볍게 빨리 내보려고 한다. 편집자가 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각예술 작가들을 위한 책의 시작이 될 거 같다. 나한테 별생각 없이 책 내보라고 하신 미국 출판사 사장님은 내 덕분에 책을 몇 권 더 출간하실 것 같다. 이건 또 일종의 선언인가. 나는 쉬면서도 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내년에는 다시 아티스트 북클럽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각예술 작가님들과 함께하는 책모임은 내게 정말 중요한 미션이다. 내년이면 벌써 7기다. 이 모임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초대해서 내년에도 알차게 진행하려고 한다. 서류 많은 지원사업 말고 개인이나 기업 후원을 받으면 참 좋겠다. 나도 내 돈 써서 더 재미있게 해볼 생각이다. 출퇴근하느라 거의 3시간 운전하는 날도 있는데 아티스트 북클럽 할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그래! 이거지! 이 기쁨!



아티스트 북클럽 6기 멤버들의 단체전 모임



L♡보ME 칼럼_ 4. 시간의 풍경, 한강의 소리



조은영

기획자 / @ dalnurilab

2025.10.29. 한강



지난번에 영화 ‘인연’을 통해 ‘Post-modernism’을 교차하는 동서양의 시간관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유년 시절에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cassette-player로 시작된 나의 음감 생활을 통해 ‘modernism’과 ‘Post-modernism’이라는 시간을 들여다보려 한다. 1988년 영등포 명화극장에서 처음 보았던 홍콩영화와 이듬해 63빌딩 컨벤션 홀에서 경험했던 라이브 콘서트는 유년 시절에 내가 처음 맛보았던 새로운 문화였고, 그 시간은 지난 40년 동안 변화한 한강의 풍경과 함께한다. 그리고 근대에 일본문화의 유입으로 탄생한 신민요부터, 탈근대에 미디어를 통해 유입된 미국 Pop-문화의 영향으로 탄생한 K-pop까지, 한 시대를 대변했던 노래를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지점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작년에 문화기획을 하며 기고했던 글을 조금 보완해 이번 칼럼을 채운다.

예중 예고를 거쳐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내가 Cassette Tape과 CD, 오디오 시스템을 거치는 음감 생활의 종착지까지 함께했던 LP가 있다. 한 면의 재생이 끝날 때에 맞춰 레코드판을 뒤집는 게 조금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소리가 주는 행복감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Lp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어떤 음악이든 찾아 들을 수 있게 되어 소리가 주는 행복감도 초고속으로 짧아졌지만, 여전히 바쁜 일상에서 숨을 돌리게 해주는 것은, 내게 음악이기에 이번 칼럼은 근현대의 100년을 하나의 소리풍경으로 구성해 K-컬처라는 새로운 문화적 전환점을 마주한 ‘지금’의 시간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서양의 클래식 음악사 끝에서 JAZZ가 탄생했고, 한국의 전통음악 끝에서 민요가 탄생했다. 20세기 근대사에 등장한 신민요는 우리 전통민요에 LP와 같은 소리 매체를 통해 일본문화가 유입되면서 탄생한 일종의 혼종적 소리이자 새로운 소리 문화였고, 지금의 정동극장 자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원형공연장이 세워졌다. 일종에 티켓을 구매해 공연을 보는 새로운 소리 문화가 탄생한 것이다. 이전에는 풍물패와 풍물 소리꾼들이 시장이 열리는 황학동에서 오간수문이 있는 동대문 밖까지, 청계천 일대에 장이 열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에서 소리를 내는 문화가 당시에 있었다. 근대사에 녹음매체의 기술로 인한 문화의 변화는 문화뿐만 아니라, 의식주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었다, 그 무렵, 경인 공업지역의 중심 지였던 영등포역에서 노량진역까지, 한강의 풍경을 노래했던 신민요 ‘노들강변’(1934, 박부용)이 탄생했다. 이 노래는 지금까지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우리의 소리 문화다. 한국 전쟁이 후, 1955년 영등포역에 재래시장이 형성됐고 한반도의 산업화를 주도했던 탈근대의 풍경을 ‘영등포의 밤’(1963, 오기택)이라는 노래를 통해 상상해봤다. 이 노래는 동명의 영화(1966, 강민호)로도 상영됐는데 197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고 주요 교통수단이 기차에서 자동차로 변화하면서,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애타는 실 향민의 심정을 노래한 ‘세갈래 고속도로’(1972, 김상진)’라는 노래가 이어서 탄생한다.

2025년 영등포



지금 들어보면 노랫말의 표현이 당시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노래는 한강공원을 탐색하러 갔다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너무 신나게 듣고 계셔서 덩달아 알게 된 노래다. 이렇게 신민요에서 트로트로 이어진 한국의 대중가요는 70년대 컬러TV가 보급되면서, 미국의 Pop 문화가 안방극장으로 유입되게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한다. 70, 80년대 J-pop과 city-pop, 미국 Pop 문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 가요에 변화가 시작되었던 이 무렵 라디오와 워크맨을 통해 들었던 수많은 노래가 나의 사춘기 시절 유일한 감성적 통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다. 그 무렵, 여의도 63빌딩에서 보았던 ‘이문세의 콘서트’는 예고에서 클래식을 공부하고 있던 나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이었고, 80년대 대학가요제와 강변 가요제(J에게_이선희, 1984)같은 오디션을 통해 데뷔한 젊은 가수들에 의해, 대중음악의 새로운 음악적인 표현과 노랫말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비로서, 10대에 내가 따라 부를 수 있는 가요가 생긴 것이다. 그전까진 아저씨들을 위한 가요(트로트)만 존재했는데 밴드 뮤직과 발라드 같은 장르가 생기고 우리말의 감성적 표현이 확장되면서 이것이 드라마와 영화로도 확장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았던 tv-영화에 얼마나 폭력적인 영화가 많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스토리의 헐리우드 영화와 홍콩의 르누아르를 모방한 한국 영화가 당시 대중문화의 주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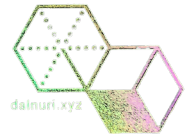
그렇게 권선징악으로 일관된 헐리우드 영화와 Pop 음악의 범주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적 양식이 형성되면서 다국적 음악을 듣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90년대에는 K-pop의 전신이 되는 레게와 힙합 뮤지션(하여가/何如歌_서태지와 아이들, 1993)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한국의 대중음악사에 가장 풍부한 음악적 발판이 프로듀서와 가수의 관계, 문화와 산업이 연계되는 방식이 형성된다. 그리고 지금은 K - 컬처의 붐과 더불어 전통의 유산을 동시대대로 가져오려는 BTS의 퍼포먼스와 노래를 광화문 광장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문화의 전환점을, 뉴미디어의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다.





2025.10.31. 당산철교

www.dalnuri.vercel.app/
기획자 조은영@dalnuri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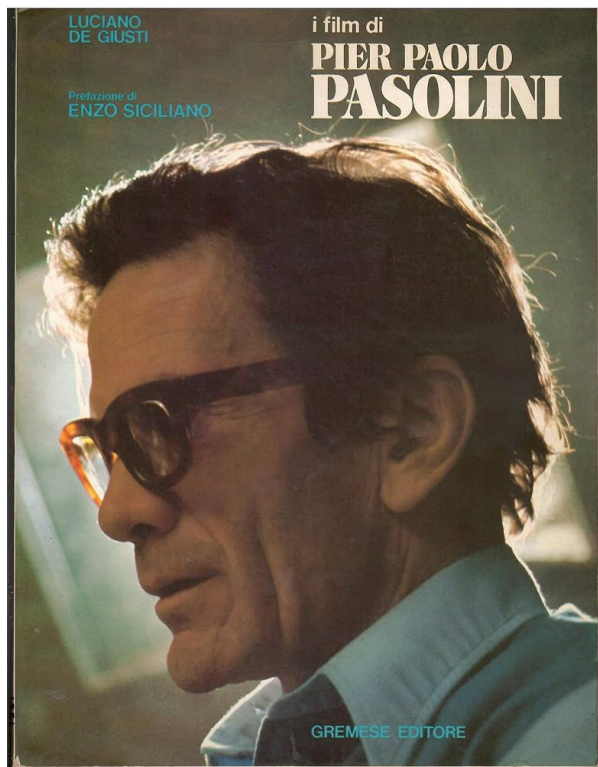


그 곳에 가고싶다 : 유토피아(Youtopia)

X

작가 & 전시기획자

피에로 파올로 파졸리니에 관한 책 커버
출처: 아마존 프랑스어 사이트



Un artista, se è generoso e appassionato, è sempre una protesta vivente. Appena apre bocca, contesta qualcosa al conformismo, a ciò che è ufficiale...

너그럽고 열정적인 예술가는 늘 살아있는 항쟁이다. 입을 여는 것부터가 순응주의와 공식적인 것으로부터의 저항이다.

피에로 파올로 파졸리니(Piero Paolo Pasolini, 1922-1975)

프랑스에서 파졸리니의 “테오레마(Teorema, 1968)” 를 처음 보았다. 어느 날 친구 같은 교수 이반 에디옌느가 테오레마를 보았냐고 나와 내 프랑스 친구에게 물어봤다. 그 당시 난 안 본 건 무조건이라도 봐서 프랑스 지식인이 보는 영화를 익혀야 대화가 되었던 상황이라서 집에 달려가서 보게 되었다. 한국에 살았을 때는 파졸리니를 운운하는 한국의 영화 비평가는 있었지만, 내가 이게 당시 사람인지 영화 제목인지는 몰랐고 트뤼포, 고다르, 르누와르, 파스빈더 영화만 자주 봤었다. 기이하게도 내 프랑스 친구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피터 그리너웨이, 데이비드 크로넌버그 영화에 빠져서 같이 엄청 많이 보았지만 프랑스나 독일의 누벨 바그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로셀리니 영화나 데 시카 영화를 봤다고 얘기하면 내 친구들은 관심도 없고 이 감독을 전혀 몰랐다. 같이 술 먹으면서 피터 그리너웨이의 영화를 감상하고 일본 감독 아키라 구로사와 얘기하는 것도 이미 진절머리가 난 시기였다.

집에서 테오레마를 보면서 별로 감동의 물결이 오지 않아서 중간쯤 보고 단순하게 부잣집 가족의 정형화 된 삶을 비판한 영화라고 느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족 전원이 모두 다 이상하게 변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라는 느낌을 받았다. 1960년대 이탈리아가 한창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경제가 부상할 때 파졸리니가 왜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한 것일까? 왜 그는 부르주아지의 정형화 된 삶을 싫어할까?라는 질문이 생겼다.

영화가 끝났을 때 난 아 이 감독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삶”의 정형화된 것 (Teorema)을 거부하고 영화의 각각의 일원을 통해서 그들의 정상 궤도의 이탈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에게 매우 날카롭게 다가왔다. 파졸리니는 인간의 다양성이 사회적 순승성에 의해 파괴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체계 안에서 고질적으로 반복이 될 거라는 것을 예리하게 파악한 감독이었다.

파졸리니의 영화에는 “침”이 숨겨져 있다고 느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영화 몇 편과 그가 한 여러 삶의 행동을 알아봤다. 돈이 없어서 창녀로 일할 수밖에 없는 비운 한 삶을 그린 “엄마 로마(Mama Roma, 1962)” 그리고 바로 죽기 전 완작인 “살로 소돔의 120일(Salò o le giornate di Sodoma, 1975)”에서 난 감독이 권력과 자본이 우리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극혐오하고 투쟁한다는 것을 보았다. 이미 파졸리니는 자본주의에 잠식된 사회의 미래를 뻔히 내다보고 끊이없이 영화를 통해 경고하고 있었다.

당시 충격적인 것은 당시 이탈리아의 정부 혹은 마피아가 그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증오했는지였다. 1975년 11월 파졸리니가 비참하게 발견되었을 때 파졸리니를 죽인 당시 어린 살인자 기제페 펠로시(Giuseppe Pelosi)가 파졸리니의 성폭행이 두려워서 죽였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로마 근처 오스티아의 해변에서 발견된 그의 시신은 엄청나게 훼손되었고 몸 위로 차가 여러 번 지나간 흔적이 있었다. 심지어 남근은 이미 잘려져 나갔다는 소문도 있다. 부검 결과 한 명으로서 이렇게 많은 훼손과 상처를 몸에 낼 수 없다는 것이 의견이었다. 이미 5명이 함께 파졸리니를 끌고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난 아직도 그의 죽음에는 파졸리니의 저항 정식을 혐오한 이탈리아의 기독교민주당 혹은 마피아가 분명히 연관 되었다고 생각한다. 파졸리니는 파시즘이 더 악화 된 상태가 소비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사회를 이렇게 이끈 당시 기독교민주당의 파시스트적인 여러 행보에 기민당이 법정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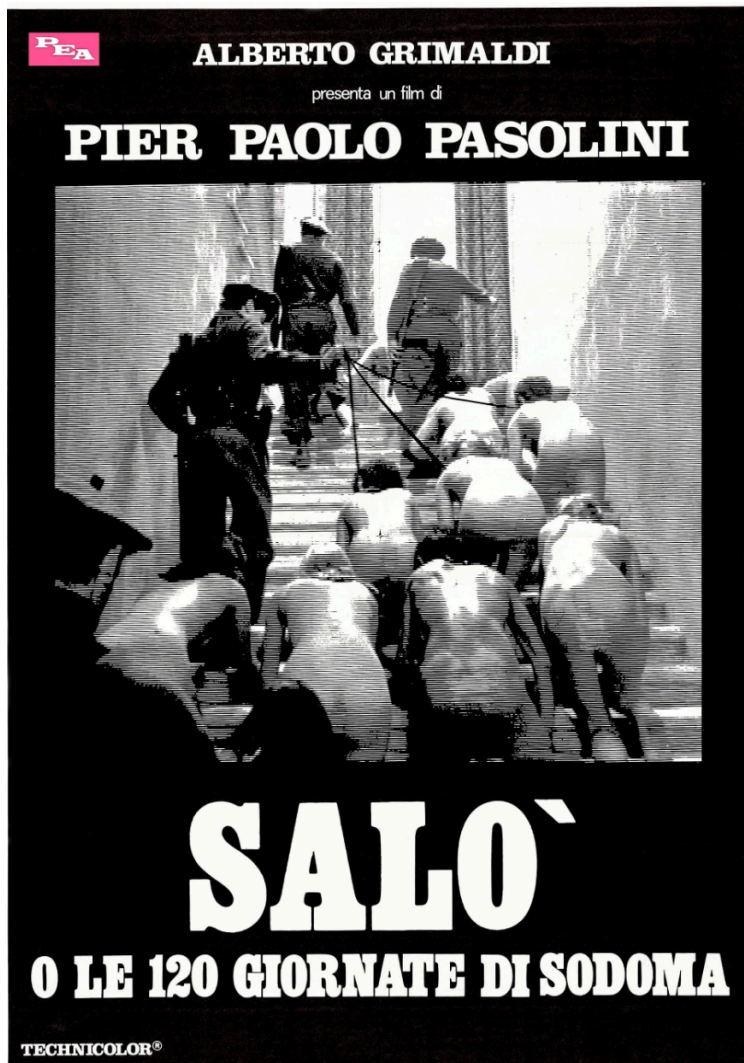
그의 비참한 죽음, 파졸리니가 영화를 통해 보여주려는 “현실성”, 그리고 날카로운 사회 비판의식과 끈질긴 항쟁은 나에게 파졸리니를 이탈리아의 또 다른 천재라는 문구를 세기게 해줬다. 그리고 모든 천재가 그러하듯 삶이 평탄하지도 않았다.

난 세상의 아방가르드들과 천재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와 문화적 감수성을 넘어서는 인류적 보편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파졸리니가 이탈리아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후 세대로서 당시 이탈리아의 사회 재건 속에서 일어나는 도시화, 근대화, 정치와 종교의 타락,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를 감독이 예리하게 꿰뚫고 본 것이 중요하다. 문인으로 시작해서 카메라를 잡기까지 그는 여러 지식인과 친구가 되어서 토론과 우정 그리고 연대를 쌓아왔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와 가깝게 지낸 지식인들도 심리적, 정치적, 육체적 피해를 겪었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의 예술성과 그가 바라본 미래의 시선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파졸리니는 그의 삶의 다양한 행보를 예술로 보여줬고 그는 끊임없이 저항했다. 여기서 마지막을 문단의 첫 시작인 파졸리니로 글귀로 마무리하고 싶다.

“이기심이 없고 열정적인 예술가는 언제나 살아 있는 저항이다. 입을 여는 것만으로도 그는 저항하게 된다. 순응에 맞서고, 공식적이고 공적인 것, 국가적인 것,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것들에 맞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술가가 입을 여는 순간 그는 곧바로 관여하게 된다. 입을 여는 행위 자체가 언제나 스캔들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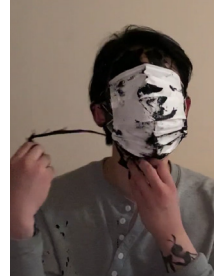
파졸리니 영화 포스터

출처: [https://www.](https://www.imdb.com/)

[imdb.com/](https://www.imdb.com/)

작은 방을 만든다

김 희 진
노동자



작은 방을 만든다. 그것은 거주의 단위라기보다 몸 하나를 겨우 수용하는 압축된 조건, 물러날 곳이 없는 밀도의 배치, 몸을 펼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접도록 강요하고, 서 있기보다 앉기를, 그것보다도 눕도록 나를 만들고, 말하기를 그보다 잔여한 일로 남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 그것을 만든다.

그러면 왜 자꾸 작은 폐쇄계를 만들고 그 안에 틀어박혀 몸을 눕히는가. 그것은 휴식의 욕망인가, 은둔의 충동인가, 혹 외부 시간과 접속하는 방식을 잠시 끊어내고 다른 감각의 회로를 열기 위한 임시의 구조물인가. 그러므로 사회적 언어로 포획되지 않은 피로들을 일정한 물질적 조건 속으로 밀어 넣는 일일까. 어쨌든 그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떤 임계상태로 밀어 넣기 위해 (임시로) 구성한 환경이다.

선 몸은 쉽게 사회화 되기 때문인가? 서 있는 몸은 (적어도 누운 몸보다는 더) 응답할 준비가 된 몸, 제출할 준비가 된 몸, 평가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몸일 것이다. 앉아 있는 몸도 아직은 (~보다는 더) 그러한 기능의 몸이다. 쓰고, 보고, 고치고, 설명하고, 마감의 틀에 끼워 맞추는 몸. 개중 택한 누운 몸은 수직의 질서에서 벗어난다. 누운 몸은 생산의 자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정면성을 잃고, 발화의 의무에서 미끄러진다. 그것은 무능의 몸이 결코 아니고, 기존의 기능 배치를 거부하는 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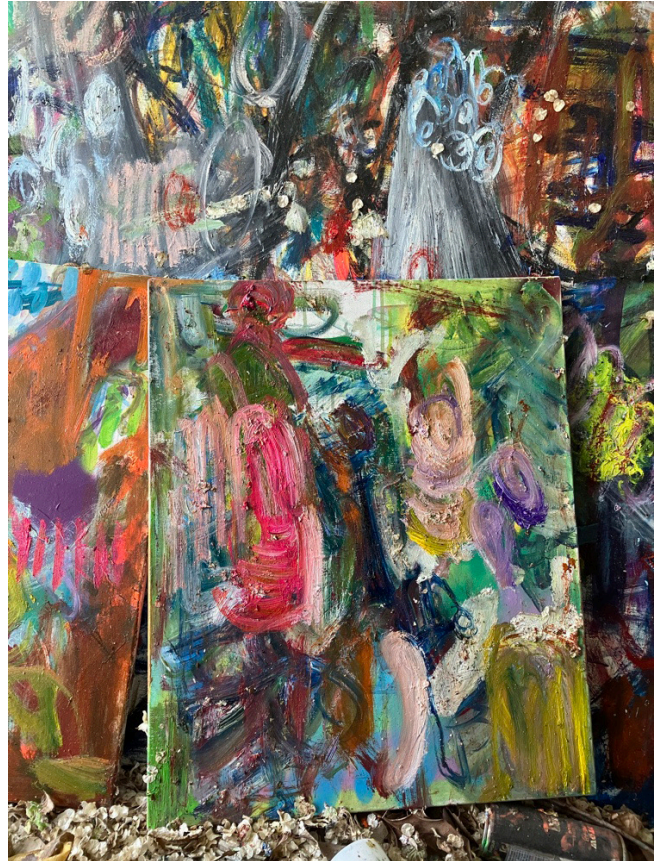
그러니 이는 기어코 몸을 다시 무용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다. 작은 방은 이 무용한 몸을 위한 장치다. 이제 더 이상 작업을 지휘하는 주체로 서 있지 않다. 몸은 캔버스 옆에, 마른 물감 옆에, 쌓인 파편 옆에, 정리되지 않은 잔여들 옆에 놓인다. 그렇게 발생하는 환경의 일부가 된다. 파놓은 도피처는 배경일 뿐 아니라 몸과 사물과 표면과 시간을 같은 밀도로 묶으니, 단순한 경계를 넘어서는 압력이고, 바닥도 지지체를 가장하지만 결국 몸의 무게를 되돌리는 표면이기에 몸을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는 하나의 체계가 된다.

대상의 표면도 안정된 이미지가 될 수가 없다. 무엇인가 나타나려다 지워지고, 다시 덮이고, 번지고, 응고되는 과정의 흔적이다. 형상이 끝내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하지 못한다. 몸처럼 보이다 얼룩 되고, 꽃처럼 찌꺼기가 되고, 사물처럼 덩어리로 후퇴한다. 이 표면은 재현된 세계를 거부하여, 아직 세계가 되지 못한 것들의 밀도로 남는다. 이제 작은 방도 회화가 가지고 있던 압력을 실제 공간으로 옮기는 ‘일’로 전락한다.

이제 캔버스 안에서 일어나던 덮임, 지워짐, 침전, 응고, 실패, 반복은 몸이 직접 통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일. 그림이 몸을 둘러싸는 조건이 되는 일이므로 회화는 보는 것이 아니라 체류하는 것이 된다. 결국 그림을 완성하기보다, 그림이 하나의 환경이 되는 순간을 붙잡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 안에서 더 이상 바깥에서 판단하는 이는 어디에도 없고, 그 밀도 안에 포함된 하나의 잔여가 된다.

그러나 그 영원은 고요한 은둔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 언제든 끝날 수 있는 마감 직전의 시간이다. 문을 닫고자 끝없이 달려왔지만 아직 닫히지 않는 시간, 아직 결과가 되지 못한 시간, 형식이 되려 하지만 아직 형식 바깥에서 진동하는 시간. 아직 그 시간 안에 머물고 싶다는 욕구에 의해서만 그것은 결국 지속된다. 아직도 제도화되지 않고, 아직도 언어화되지 않고, 아직 자신에게도 자신이 완전히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소유물이 아니라 사건, 발생 중인 상태이다.

그 마감 직전, (결과/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모든 것을 불태우고 소멸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단순한 파괴욕과 다르다. 정리에 대한 저항, 결과됨에 거부이며, 묶임에 대한 반작용이다. 불태운다는 것은 보존에 거부하는 ‘일’이다. 스스로를 다시 열어젖히는 방식이고.





한량윤씨
게으른 창작자

미장하는 사람

미장을 잘 알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물감과 닮아서’ 선택한 이유였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던 내게 흙과 물을 섞어 벽 위에 올리는 일은 본능적으로 낯설지 않았다. 팔레트 위에서 물감을 개듯 재료를 섞고, 붓 대신 흙손을 들었을 뿐이었다. 벽은 캔버스가 되었고, 미장은 그림을 그리는 또 하나의 방식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지난 몇 년간 흙을 주재료로 작업하는 작가님의 어시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미장의 영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이상하리만큼 친숙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미장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시멘트 미장, 석회 미장, 석고 미장, 황토 미장 등으로 나뉘며, 각각 강도와 통기성, 작업성이 다르다. 그래서 작업하는 위치와 목적, 시공 방법 또한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시멘트 미장이었다. 그중에서도 주로 사용한 재료는 레미탈이었다. 레미탈은 시멘트와 모래, 그리고 작업성을 높이는 첨가제가 미리 배합된 프리믹스 모르타르로, 가벼운 보수 작업은 물만 섞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레미탈에 시멘트를 추가로 배합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멘트는 모래가 섞여 있지 않은 아주 고운 가루다. 마치 밀가루처럼 입자가 곱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잘 몰라서 딱 한 번, 시멘트만 물에 개어 미장을 해본 적이 있다. 마르고 나니 그 부분만 짙 짙 갈라졌고, 결국 다시 작업해야 했다.



외부 벽 미장

그때 비로소 모래가 단순히 양을 늘리는 재료가 아니라, 수축을 줄이고 균열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레미탈에 시멘트를 약 3:1 정도의 비율로 추가 배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필요한 강도와 작업 환경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시멘트 모르타르는 벽돌을 조적할 때도 사용했고, 벽과 바닥을 보수하는 작업에도 빠지지 않았다. 두 겹게 바른 뒤 충분히 양생된 면은 망치로 여러 번 두드려도 쉽게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진다. 처음에는 그저 물감과 닮았다는 이유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어느새 나는 재료 하나하나의 성질을 몸으로 익혀가며 배워가고 있었다. 외부 벽 미장은 무엇보다 순수한 힘이 필요한 작업이다. 꾸덕한 시멘트 반죽을 흠손으로 펴서 벽면에 반듯하게 펴바르는 단순한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체력은 금세 바닥이 난다. 왼팔에는 반죽이 담긴 미장판을 받치고, 오른손에는 흠손을 쥔다. 짧게는

두 시간, 길게는 다섯 시간을 쉬지 않고 작업한 날도 있었다. 그동안 반죽이 굳지 않도록 남편은 중간중간 물을 섞어가며 농도를 맞추는 보조 작업을 맡았다.

그나마 작업 위치가 편하면 다행이다.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이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곳에서는 작업 난이도가 몇 배로 높아진다. 게다가 날이 더운 요즘같은 날씨라면 그야말로 ‘죽음’이다. 그렇다고 미장 반죽이 마음처럼 착 달라붙는 것도 아니다. 벽면의 각도와 상태에 따라 반죽은 자꾸만 흘러내리고, 힘들게 올린 반죽은 마치 약올리듯 툭툭 떨어져 버리기도 한다.

그럴 때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심리적인 압박이 더 크게 밀려온다. 이미 손목은 한계에 가까운데 작업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벽을 보고 있으면 스스로의 서툰에 화가 치밀기도 했다. 작업 초반에는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무리하다 손목을 다치기도 했다. 지금은 내 체력과 하루 작업량을 먼저 계산하며, 무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작업을 오래 이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까래 미장은 시작부터 고난도 작업이었다.

백 년이 넘는 한옥의 서까래는 대나무와 갈대를 촘촘히 엮은 뒤 그 위에 흙과 기와를 얹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열과 전기 배선을 위해 합판 천장으로 덮여 있었지만, 나는 그 천장을 걷어내고 서까래를 다시 드러내기로 했다. 그 선택은 곧 집에서 가장 힘든 미장 작업의 시작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선택한 재료는 석고본드였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마른 뒤 은은한 아이보리색으로 굳는 색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뛰어난 접착력이었다. 고운 가루에 물을 섞으면 끈적한 반죽이 되는데, 대나무와 갈대가 얇힌 거친 틈새를 단단히 붙여 줄 것이라 기대했다. 이름 그대로 ‘본드’의 역할을 해 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석고본드는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는 아니었다. 가격 또한 일반 미장재보다 두 배 가까이 비쌌다. 결국 초벌은 석고본드로 진행하고, 마감은 백색 시멘트로 바꾸었다.



가장 처음 마주한 대나무와 갈대 틈 사이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미장을 하고있다

1차 석고본드로 한 미장





2차 백시멘트로 한 미장

돌이켜 보면 서까래 미장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들었고, 가장 많이 다쳤으며, 가장 많이 포기하고 싶었던 작업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정도의 고생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바닥 미장은 흔히 ‘방통’이라고 부른다. 끝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의 바닥을 한 번에 미장하기로 했다. 구들장이 남아 있는 바닥도 있었고, 보일러 배관이 깔린 곳도 있었으며,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도 있었다. 서로 다른 바닥을 하나의 높이와 하나의 표면으로 만드는 일이 목표였다.

작업실로 사용할 공간이 대부분이었기에 바닥난방은 과감히 포기했다. 덕분에 공정은 조금 단순해졌지만, 한옥 특유의 단차는 또 다른 문제였다. 방과 방이 이어지는 부분마다 높이가 달라 벽돌을 쌓아 기준을 맞추고 하나씩 정리해야 했다.

처음에는 바닥 미장이 천장보다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래를 향해 작업하면 되니 훨씬 편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었다.

바닥은 천장이나 벽과 달리 무엇보다 평탄화가 중요했다.

리모델링 1년 차, 가장 먼저 서둘러 작업했던 곳은 부엌 바닥이었다. 이미 장판을 사용하던 공간이라 장판만 걷어내고 가볍게 샌딩한 뒤 투명 에폭시로 마감했다. 당시에는 제법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막상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생활해 보니 수평이 맞지 않아 가구들이 기우뚱거리고 삐걱거렸다. 별것 아닐 거라 생각했던 바닥의 수평은 생각보다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였다.

레이저 수평계를 이용해 바닥 높이를 체크한다. 모모와 내 발목까지 바닥이 올라올 예정



43. 2026.7

그 경험 덕분에 이후 바닥 미장을 할 때는 평탄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다. 바닥의 작은 돌을 하나씩 골라내고, 다지고, 메우고, 다시 다지는 작업을 반복한 끝에야 비로소 비닐을 깔 수 있었다.

비닐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 위에는 단열재를 올린다. 보통은 50T를 사용하지만 우리 집은 기초 바닥이 높은 편이라 30T를 선택했다. 바닥 미장은 양생까지 마치면 최종 높이가 12cm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높이를 계산해 작업해야 한다.

단열재를 깔고 나면 틈 사이로 시멘트 반죽이 스며들지 않도록 테이핑을 하고, 갈라짐을 줄이고 바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철망을 덮는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시멘트 반죽을 만들 수 있다.

단열재를 바닥에 맞춰 깔고, 테이핑까지 마친 상태



그때부터는 끝없는 반복이다. 반죽하고 붓고, 또 반죽하고 붓는다.

반죽을 만드는 믹서기는 작업 도중 결국 고장이 났다. 원인을 찾을 시간도, 작업을 멈출 여유도 없었다. 결국 남편의 두 팔이 믹서기를 대신했다.

한 번에 만드는 반죽은 물까지 합치면 100kg이 넘는다. 삽으로 있는 힘껏 뒤섞어 겨우 만 들어도 바닥에 부어지는 면적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아 허탈했다. 그렇게 수십 번의 반죽을 반복한 끝에 바닥은 완성되었다. 1차로 약 2cm, 2차로 3cm 이상을 덧미장하며 조금씩 원하는 높이와 평탄함을 만들어 갔다.

하지만 바닥 공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처음에는 제법 깔끔하게 마무리된 줄 알았다. 그런데 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자 곳곳에 예상보다 큰 크랙이 생겼다. 결국 그 부분들은 다시 보수해야 한다. 공들여 만든 결과물에 금이 간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마음이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미장이 재미있다.

캔버스 위의 비현실적인 붓질에 비교하자면, 벽을 세우고, 천장을 막고, 바닥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은 나에게 완벽히 몰입감과 긴장감을 주었다.

손끝의 감각 하나, 수평과 무게, 재료의 시간까지.. 이것이 내가 진짜 바라던 것이었을까?
나는 과연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3일에 걸친 바닥미장이 끝난 직후의 모습



국밥 맛있는 집을 소개하면서 ‘국밥이 맛있습니
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인치고 국밥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리고 국밥은 그 종류마다, 또 집마다 맛이 다를 수
밖에 없으니 ‘맛있다’는 것을 표현하려면 정말 디
테일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먹은 정말 맛있는 국밥은 대전에 있는 유
명한 국밥집의 소고기 국밥이다. 여기는 워낙 맛
집이라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러한
집이다. 나는 이 집을 소개할 때 이 집이 ‘유별나게
이게 좋습니다’ 라기보다 ‘기본기가 엄청나게 뛰어
납니다’라고 소개하고프다. 이 집이 참 마음에 드
는 이유는 ‘잡내가 나지 않는 깔끔함’에 있다. 소
고기 국밥의 경우 정말로 고기 잡내가 하나도 나
지 않고 내장탕 마저도 매우 깔끔하다. 또한 육사
시미 마저도 매우 깔끔하고 신선한 맛이라 국밥과
함께 반드시 먹어야 하는 메뉴이기도 하다.

대전에 갈 일이 많지는 않지만 성심당과 함께 꼭
들리고는 하는 국밥집. 푸짐한 고기에 깔끔하면서
도 풍미가 넘치는 따끈한 국물, 달큰하고 폭 고와
진 무 덕분에인지 감칠맛이 풍부하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의는 피그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은 무가지이며 온라인, 문화 공간 등에 무료 공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필진을 환영합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6. 7 / 43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그램 DM가능

이번달 참여 필진 : 김혜현, 김희진, 오종원, 조은영, 한량윤씨, X